

# 2013 강릉단오제 관광객의 소비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정욱영\*, 한진영\*\*

관동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관동대학교 호텔경영학과\*\*

## Determinants of Tourist Expenditure on 2013 Gangneung Dano Festival

Ug-Yeong Jeong\*, Jin-Young Han\*\*

Dept. of Economics and Finance, Kwandong University\*

Dept. of Hotel Management, Kwandong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강릉단오제 관광객의 소비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소비지출의 결정요인을 소득, 직업 등 12개 설명변수로 종속변수는 총 지출 및 5개의 항목별 지출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논문의 주요 분석결과로 소득은 관광소비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소득이 소비에 양(+)의 효과를 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둘째, 나이가 많고 수도권 거주 관광객일수록 전체 및 항목별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동반인 수가 많을수록 소비지출은 감소한다. 넷째, 참가일 수와 체류기간은 소비지출에 양(+)의 효과를 준다. 남자이며 기혼이고 자비 숙박 관광객일수록 소비지출은 증가한다. 다섯째, 항목별 소비지출의 결정요인으로 소득과 같은 공통적인 변수도 있으나 항목별 소비지출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차별적인 결정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논문은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관광전략을 도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단오축제, 다중회귀 모형, 소비지출 결정요인, 소득, 경제적 파급효과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determinants of tourist consumption in the case of 2013 Gangneung Dano Festival, based on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 We set 12 determinants of consumption such as income as explanatory variables and consumption expenditure as a dependent variable. Also Five kinds of categorical consumptions are estimated. Main results are the followings. First, incom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and shows positive effect in tourist consumption. Second, age and metropolitan area influence consumption positively. Third number of participating day and length of stay also influence consumption positively. Fourth, number of accompanying person shows negative effect on consumption. Fifth, male, married person, and lodge with own expense influence consumption positively. Finally, categorical consumption has its specific determinants distinct from common factors This paper can be applied to invent and implement efficient strategies for development in regional economies and tour industries.

**Key Words** : Dano Festival, Multiple Regression Model, Determinants of Consumption, Income, Economic Impacts

Received 30 October 2013, Revised 27 November 2013

Accepted 20 December 2013

Corresponding Author: Jin-Young Han(Kwandong University)

Email: jyhan@kd.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 I. 서론

최근 경제성장의 둔화로 지역경제의 침체가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지방정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자원을 이용한 차별화된 지역축제를 경쟁적으로 고안하여 지원하고 있다[17].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축제를 활성화시키는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13]. 첫째, 비용적인 측면에서 축제 개최는 다른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보다 자본이 적게 소요되기 때문이다. 특히 관광시설과 자본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상품개발에 필요한 시설과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지역경제 파급효과 측면에서 축제로 인하여 창출된 수입이 지역주민에게 환원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셋째, 축제는 개최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강릉단오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축제이며 2005년에는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의 걸작으로 등재되었다. 높아진 강릉단오제의 위상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오제에 대한 질적 및 양적인 평가와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를 체계적이고 수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강릉시의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축제지원금을 배정할 때 지정문화관광축제의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파급효과분석의 결과가 예산지원의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9].

단오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고 파급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오제 관광객의 소비구조와 행태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파급효과 추정에는 파급효과 분석에 적합한 소비항목과 지출액이 필요하다. 그리고 축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소비행태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관광객의 특성에 적합한 행사 운영과 개발, 시설관리, 홍보 등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강릉단오제는 전국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이지만 지금까지 관광객의 소비행태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하다. 본 논문은 관광객 소비지출의 결정요

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관광객의 특성에 따라 시장 세분화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오축제가 갖는 지역경제에 있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단오축제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연계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단을 고안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II. 선행연구

관광객의 소비지출에 관한 연구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국민소득, 이자율, 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와 관광 지출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16][11], 또한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관광소비의 생산, 소득, 고용 등에 대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표 1>은 관광소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많은 논문 중 일부를 제시하고 있다.

(Table 1) Research on economic effects

Researcher	Contents
C. K. Lee et.al. (2008) [9]	Regional impacts on Kyungoo world Expo
H. J. Kim (2009)[5]	Comparative study of economic impacts between Kyongbuk and other regions
H. J. Kim & C. K. Lee (2009)[6]	Economic effect of food industry
S. H Joo et. al. (2009) 1. [4]	Economic effect of Busan biennale

두 번째 연구 방향은 관광객의 소비행태를 미시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여 소비지출의 결정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표 2>는 관광객 소비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논문 중 일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 연구목적과 대상 그리고 분석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소비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은 개별 관광객의 특성인 소득, 직업, 거주지 등 경제적인 요인과 성별, 나이, 체류기간, 동반유형, 방문경험, 만족도 등 인구 및 사회 심리적인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결정요인의 소비에 대한 영향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소득의 경우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12][14][1]. 그러나 고동우(2004)[10]는 소득이 소비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숙박여행일수록 소비는 증가되며[8], 체류기간도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3]. 방문경험의 경우 Godbey & Graefe(1991)[2]은 방문회수가 소비를 감소시킨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반면 Long & Perdue(1990)[14]의 연구에서는 방문회수는 소비지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반유형에서는 Agarwal & Yochum(1999)[1]은 동반한 어린이가 많을수록 지출이 증가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김민형·장준호·황영현(2013)[7]은 가족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목적, 숙박유형, 동반유형이 항목별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가족 또는 친지와 동반할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의 지출이 증가된다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 연구 방향은 두 번째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기업 측면에서 관광수입의 극대화를 위한 관광전략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의 기본적인 내용과 목적은 관광객의 특성에 따라 시장을 세분화하여 개별 시장에 적합한 차별화된 관광 상품개발과 관광객 유치 및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2][15][7].

(Table 2) Determinants of expenditure

Researcher	Determinants of expenditure	Objects
D. W. Ko (2004)	income, length of stay, residence	festival
H. C. Lee (2002)	income, residence, satisfaction, visit type	Hampyeong festival
M. H. Kim et. al. (2013)	travel purpose, lodging type accompanying type, experience	family tourists
Long & Perdue(1990)	income, travel purpose, experience, satisfaction	Expo
Agarwal & Yochum(1999)	income, length of stay, number of accompany, lodge type	Beach festival
Henthorne(2000)	length of stay	Cruise tourists

본 연구가 기존의 선행연구와 다른 기여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강릉단오축제는 전국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이지만 관광객의 소비행태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오축제가 갖는 지역경제에 있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단오축제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관광객유치 전략을 고안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많은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관광객 소비의 개별적인 결정요인 중 특히 소득과 거주지 등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방법론에서 모든 결정요인들과 소비지출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명확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다중회귀모형을 활용하였다.

### III. 분석 방법 및 모형

#### 3.1 자료수집 방법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2013 강릉 단오제 관광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1인당 지출액에 관한 설문조사를 행사 현장에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편의표본추출에 의한 응답자들이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하여 기입하도록 하였다. 설문내용은 강원도 축제 방문객 지출항목 표준안(강원도, 2011)을 기준 안으로 삼았다.

설문응답요령 및 내용을 숙지한 10명의 조사자들이 설문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2013 강릉 단오축제 행사장에 투입되어 행사기간 동안에 주중(2일), 주말(2일)을 포함한 4일간 직접 조사하였다. 총 251개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기재 내용이 완전한 181개 설문지만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 3.2 분석 모형

단오축제 관광객의 소비지출의 결정요인을 추정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추정 식을 설정하였다.

$$\log(y) = c + \sum_{i=1}^4 \beta_i \log(x_i) + \sum_{i=5}^{12} \beta_i x_i + \epsilon$$

y는 관광객의 소비지출, c는 상수항,  $\beta_i$ 는 회귀계수,  $x_i$ 는 설명변수,  $\epsilon$ 는 오차항이다.

소비지출의 결정요인을 소득, 직업, 성별 등 12개의 설명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설명변수의 설정 방법은 <표 3>과 같다. 성별과 거주지 등 정량화할 수 없는 속성을 나타내는 결정요인은 더미(dummy) 변수로 변환

하였다.

소득( $x_1$ )과 체류기간( $x_5$ ) 등 5개의 양적인 설명변수 중 체류기간은 원 자료 값, 다른 4개 변수는 로그-변환 값, 거주지( $x_6$ )와 숙박유형( $x_{12}$ ) 등 7개의 질적인 설명 변수는 더미-값을 추정에 적용하였다.

종속변수( $y$ )인 관광객 소비지출은 총 지출과 교통비 등 5개의 항목별 지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항목별 소비지출의 경우 소비지출이 0인 표본은 추정에서 제외시켰다.

<Table 3> Dependent and explanatory variables

dependent var.	consumption spending of tourist
explanatory var.	contents
monthly income ( $x_1$ ) (unit: one million won)	① below 1 = 1 ② 1-1.5 = 2 ③ 1.5~2 = 3 ④ 2~2.5 = 4 ⑤ 2.5~3 = 5 ⑥ 3~4 = 6 ⑦ 4~5 = 7 ⑧ above 5 = 8
( $x_2$ )	number of accompanying persons
( $x_3$ )	tourist's age
( $x_4$ )	participating days
( $x_5$ )	staying days
residence ( $x_6$ )	① metropolitan area = 1 ② other areas = 0
sex ( $x_7$ )	① male = 1 ② female = 0
job ( $x_8$ )	① employed = 1 ② unemployed = 0
marriage ( $x_9$ )	① married = 1 ② unmarried = 0
purpose ( $x_{10}$ )	① Dano = 1 ② others = 0
accompany type ( $x_{11}$ )	① family and friends = 1 ② group = 0
lodge type ( $x_{12}$ )	① own expense = 1 ② others = 0

#### IV. 실증분석 결과

##### 4.1. 관광객의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

<표 4>는 2013 강릉단오제 관광객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요약하고 있다. 관광객 1인당 평균으로 계산한 동반인 수는 2.8명, 나이는 36.1세, 참가일 수는 2.2일, 그리고 체류기간은 비교적 단기인 1.5일로 나타났다. 체류기간이 짧은 이유는 교통이 편리해지고 또한 장기 휴무를 할 수 없는 직장인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그리고 숙박을 하지 않는 강릉 인근의 지역주민들이

축제에 참여한 것이 참가일 수가 체류기간보다 길게 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당일 축제참여자의 체류기간은 설문 조사에서 0일로 계산하였다.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수도권 관광객의 비중이 47%이며 이러한 높은 비중은 강릉단오제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관광객의 유치 전략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관광객 중 남자의 비중이 여자보다 큰 64.1%이며 학생과 주부를 포함하는 직업이 없는 관광객의 비중도 비교적 높은 31.5%를 차지하고 있다. 미혼자의 비중은 47%로 기혼자 보다 낮지만 상당한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나이가 젊은 소비자 계층이 비교적 강릉단오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사실은 단오제 발전에 긍정적인인 측면으로 작용할 것이다. 단오제 관광을 주된 방문목적으로 한 관광객의 비중이 관광객의 절반이상인 54.7%로 나타났다.

<Table 4> Tourist demographic statistics

factors		statistics
average	accompany persons	2.8 명
	age	36.1 세
	participating days	2.2 일
	staying days	1.5 일
portion (%)	metropolitan area	47.0
	male	64.1
	unemployed	31.5
	married	53.0
	Dano purpose	54.7
	group tour	16.0
	own expense tour	32.6

단체관광객의 비중은 16.0% 그리고 자비로 숙박을 한 관광객의 비중은 3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550,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2013년 강릉단오제 관광객의 총 수를 고려할 때 숙박비를 지출한 인원은 약 17만 명 정도이며 총 관광객의 숙박비 지출은 약 28억 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숙박비 지출은 강릉시의 숙박 및 연관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

##### 4.2 관광객의 평균 지출

<표 5>는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을 제시하고 있다. 축전에 참가한 관광객 1인당 평균 총 지출액은 82,171원이며 항목별 지출액은 식음료비 19,420원 (23.63%), 숙

박비 16,739원 (20.37%), 쇼핑비 14,660원 (17.84%), 교통비 14,377원 (17.50%), 오락비 13,501원 (16.43%), 기타 비용 3,474원 (4.23%)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Spending per tourist

category	average spending (Won)	portion (%)
travel	14,377	17.50
lodge	16,739	20.37
food	19,420	23.63
entertainment	13,501	16.43
shopping	14,660	17.84
extra spending	3,474	4.23
total spending	82,171	100.0

〈표 6〉은 소득수준에 따른 평균 소비지출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월 평균 소득분포는 200~2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관광객이 가장 많은 24.86%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 비중도 비교적 높은 15.47%이며 이는 학생 및 무직자가 다수 축제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 비중은 6.63%로 낮게 나타났다.

〈Table 6〉 Income distribution and average spending

monthly income (unit: one million Won)	person	portion (%)	average spending (Won)
below 1	28	15.47	36,306
1 - 1.5	14	7.73	65,506
1.5 - 2.0	34	18.78	77,196
2.5 - 2.5	45	24.86	87,178
2.5 - 3.0	30	16.57	105,111
3.5 - 4.0	18	9.94	104,306
4.0 - 5.0	4	2.21	36,875
above 5.0	8	4.42	151,667
total	181	100.00	82,171 (average)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소비가 증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통계적 사실은 소득이 양(+)의 영향을 주는 관광소비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경제적 원리를 입증하고 있다. 200~250만원 미만 중간소득층 소비는 87,178원으로 전체평균인 82,171원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미만인 최저소득층 소비는 36,306원으로 전체평균의 0.44배 수준이며, 500만원 이상인 최고소득층 소비는 151,667원으로 전체평균의 1.8배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은 관광객의 거주지에 따른 평균 소비지출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관광객의

소비는 122,422원으로 전체평균인 82,171원 보다 1.5배, 다른 지역 평균인 46,533원 보다 2.6배 정도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소득분배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도권지역에 소득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따라서 관광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산업의 주요 고객인 수도권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전략의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

〈Table 7〉 Residence and average spending

residence	number of persons	portion (%)	average spending (Won)
metropolitan	85	47.0	122,422
others	96	53.0	46,533
total	181	100.00	82,171 (average)

### 4.3. 회귀분석 결과

〈표 8〉은 2013년 강릉 단오축제에 참여한 관광객의 소비지출의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총 소비지출의 경우 다중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조정- $R^2$ 의 값은 0.50으로 횡단면자료임을 고려할 때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설명변수의 총 소비에 대한 영향을 측정된 회귀계수는 소득, 체류기간, 숙박유형, 나이, 거주지, 성별, 참가일 수인 경우는 양(+)의 부호로 결혼과 동반인 수인 경우는 음(-)의 부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직업, 동반유형, 방문목적은 회귀계수의 부호가 양(+)이나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체류기간, 숙박유형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가장 양호한 1%, 나이, 거주지, 동반인 수는 5%, 성별, 결혼, 참가일 수는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소득수준이 높고 체류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은 관광객일수록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비로 숙박을 하고 거주지가 수도권이며 남자이며 축제에 참가한 날 수가 많은 관광객에 해당될수록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에 기혼자이거나 동반인 수가 많은 관광객일수록 소비지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추정결과에 대한 경제적인 의미와 해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 관광소비는 정상재에 해당됨으로 소득 회귀계수의 부호는 양(+)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론과 일치되게 본 논문에서 소득탄

력성을 나타내는 소득 회귀계수가 0.38인 양(+)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소득이 1단위 증가되면 관광소비지출은 0.38단위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류기간이 길수록 숙박비와 음식비 등 체류에 필요한 기본 경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소비지출이 증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숙박료를 자비로 부담하는 관광객은 숙박료 지출로 인한 소비지출이 크게 되며 수도권 관광객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소득이 많고 교통비 지출이 크므로 소비지출이 많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남자는 여자보다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고 음식비 및 오락비가 크므로 소비지출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축제 참가일 수가 많으면 오락비와 쇼핑비 등의 소비지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반인 수가 많을수록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1인당 소비지출은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기혼자는 미혼자보다 가족부양으로 인한 생활비가 많이 지출되므로 일반적으로 소비성향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총 소비지출을 세분화한 항목별 소비지출에 대한 추정결과를 설명하면, 교통비의 경우 조정- $R^2$ 의 값은 0.46으로 총 소비지출의 결과와 유사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는 소득, 나이, 거주지의 경우는 양(+)의 부호로 결혼과 동반인 수인 경우는 음(-)의 부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의수준은 나이, 거주지, 동반인 수가 1%, 결혼이 5%, 그리고 소득은 10%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고 나이가 많으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관광객일수록 교통비 지출이 큰 반면 기혼이거나 동반인 수가 많은 관광객일수록 교통비 지출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숙박비는 조정계수의 값이 0.35로 총 소비지출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부호는 소득, 나이, 숙박 유형에서는 양(+)으로 동반인 수와 동반 유형에서는 음(-)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비 숙박 관광객의 숙박비가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동반인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가족단위 관광객일수록 숙박비가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숙박비 지출의 고유한 특성을 적절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식음료비의 추정결과는 조정- $R^2$ 의 값이 숙박비보다 작은 0.24로 그리고 회귀계수의 부호는 소득, 성별, 나이, 거주지에서는 양(+)으로 동반인 수에서는 음(-)으로 추정되었다. 소득이 높고 남성이며 나이가 많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관광객에 해당할수록 식음료비의 지출이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오락비는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조정- $R^2$ 의 값이 0.1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성이 있는 설명변수의 수가 8개로 항목별 소비지출 중 가장 많으며 또한 유의수준도 직업 변수를 제외하고는 1%와 5%의 양호한 값으로 추정되었다. 회귀계수의 부호는 소득, 체류기간, 숙박 유형, 방문 목적에서는 양(+)으로 직업, 나이, 거주지, 참가일 수에서는 음(-)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출과는 다르게 나이가 적을수록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관광객일수록 오락비 지출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직업, 참가일 수, 체류기간, 방문 목적도 오락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8) Regression coefficient estimates

variable	total exp.	travel	lodge	food	entertain	shopping
	7.43 (7.37) ***	4.83 (3.07)***	18.78 (2.65) ***	7.69 (7.97)***	16.11 (3.40)***	9.71 (19.27) ***
income	0.38 (3.60) ***	0.33 (1.90)*	1.02 (1.77)*	0.19 (1.63)*	1.99 (3.07)***	0.43 (2.77) ***
job	0.01 (0.02)	-	-	-	-1.53 (-1.76)*	-
sex	0.23 (1.72)*	-	-	0.41 (1.84)*	-	-
age	0.65 (2.23) **	1.25 (2.67)***	0.87 (2.20) **	0.48 (1.65)*	-3.80 (-2.62) ***	-
marriage	-0.26 (-1.73)*	-0.80 (-2.39) **	-	-	-	0.81 (2.88)***
residence	0.39 (2.11) **	1.72 (6.50)***	-	0.74 (3.17) ***	-2.22 (-2.03) **	0.56 (1.86)*
accompany person	-0.31 (-2.28)**	-0.45 (-2.79) ***	-0.53 (-3.19) **	-0.24 (-1.75) *	-	-0.46 (-2.11) **
accompany type	0.23 (1.20)	-	-4.65 (-1.67) *	-	-	-0.66 (-1.61) *
participating days	0.18 (1.70) *	-	-	-	-1.66 (-2.66) ***	-
staying days	0.18 (3.93) ***	-	-	-	0.66 (2.34)**	-
lodge type	0.48 (2.80) ***	-	1.35 (4.30) ***	-	3.08 (2.96)***	-
travel purpose	0.17 (1.49)	-	-	-	1.38 (1.97)**	-
adjust- $R^2$	0.50	0.46	0.35	0.24	0.19	0.34

note) 1. ( ) denotes t-value and \*, \*\*, \*\*\* denote 10%, 5%, 1% significance level respectively..

2. For categorical spending, sample with zero spending and explanatory variables with low significance are excluded.

쇼핑비의 추정결과는 조정- $R^2$ 의 값이 숙박비와 유사한 0.34이며 회귀계수의 부호는 소득, 결혼, 거주지에서는 양(+)으로 동반인 수와 동반 유형에서는 음(-)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득이 높고 기혼이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관광객에 해당할수록 쇼핑비의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 소비지출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소득은 모든 유형의 소비지출에 있어서 주요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소비에서도 소득이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소득이 소비에 양(+)의 효과를 준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둘째, 나이가 많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관광객일수록 전체 및 항목별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오라비 지출은 반대 효과를 나타냄) 셋째, 동반인 수가 많을수록 전반적으로 소비지출은 감소한다. 넷째, 참가일 수와 체류기간은 총 소비지출에 양(+)의 효과를 준다. 남자이며 기혼이고 자비로 숙박하는 관광객일수록 총 소비지출은 증가한다. 다섯째, 항목별로 소비지출의 결정요인은 소득과 같은 공통적인 변수도 있으나 소비지출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차별적인 결정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교통비는 결혼이 숙박비 지출은 동반 및 숙박유형이 식음료비 지출은 성별이 오라비는 나이, 거주지, 참가일 수가 쇼핑비는 결혼이 항목별 소비지출의 차별적인 결정요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강릉단오제 관광객의 소비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관광객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주는 소비지출의 결정요인을 소득, 직업 등 경제 및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인 12개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관광객 소비로 총 지출과 교통비 등 5개의 항목별 지출로 구분하였다.

논문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득은 모든 유형의 소비지출에 있어서 주요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소비에서도 소득이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소득이 소비에 양(+)의 효과를 준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둘째, 나이가 많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관광객일수록 전체 및 항목별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동반인 수가 많을수록 전반적으로 소비지출은 감소한다.

넷째, 참가일 수와 체류기간은 총 소비지출에 양(+)의 효과를 준다. 남자이며 기혼이고 자비로 숙박하는 관광객일수록 총 소비지출은 증가한다.

다섯째, 항목별로 소비지출의 결정요인은 소득과 같은 공통적인 변수도 있으나 소비지출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차별적인 결정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통비는 결혼이, 숙박비 지출은 동반 및 숙박유형이, 식음료비 지출은 성별이, 오라비는 나이, 거주지, 참가일 수가, 쇼핑비는 결혼이 항목별 소비지출의 차별적인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정책적 시사점 및 기여도로는 첫째,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관광객의 소비는 전체평균 보다 1.5배, 다른 지역 평균 보다 2.6배 정도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소득분배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도권지역에 소득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따라서 관광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산업의 주요 고객인 수도권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본 논문은 관광객 소비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관광객의 특성에 따라 시장 세분화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익창출을 목표로 하는 관광산업 기업들이 효율적인 관광전략을 도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의 한계로서 첫째, 단오제 관광객을 보다 지역 내외 지역 외, 소득별, 연령 별 등으로 구분하여 소비행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구체적인 시장 세분화와 그에 대응하는 통합적인 관광 전략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향후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REFERENCES

- [1] V. B. Agarwal & G. R. Yochum, Tourist spending and race of visitors.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 38, No. 2, pp. 173-176, 1999.
- [2] G. Godbey & A. Graefe, Repeat tourism, play, and monetary spending.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18, No. 2, pp. 213-225, 1991.

- [3] T. L. Henthorne, An analysis of expenditure by cruise passengers in Jamaica.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 38, No. 2, pp. 246-250, 2000.
- [4] S. H. Joo, S. Y. Lee, H. C. Oh, Estimating the economic impact of the Busan Biennale using multi regional Input-Output Model.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Vol. 21, No. 3, pp. 189-202, 2009.
- [5] H. J. Kim, Comparative analyzing the economic impact of the tourism industry in Gyeongbuk area and the other areas using the regional Input-Output Model. *Kor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Vol. 24, No. 2, pp. 219-237, 2009.
- [6] H. J. Kim & C. K. Lee, Estimating the economic impact of the 10th PIFF using regional Input-Output Model.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Vol. 19, No. 4, pp. 7-26, 2007.
- [7] M. H. Kim, J. H. Jang, Y. H. Hwang, Travel expenditure structure of domestic tourists traveling with family.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Vol. 25, No. 5, pp. 5-20, 2013.
- [8] S. H. Kim, H. S. Lee, M. S. Hyun, A study on the expenditure patterns of festival participants using Tobit Model: 2005 Korean alcoholic beverage and rice cake.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Studies*. Vol. 7, No. 1, pp. 21-33, 2005.
- [9] C. K. Lee, T. Y. Seo, J. K. Park, Estimating the economic impact of the 2007 Gyeongju World Culture Expo: survey based regional Input-Output Model. *Kor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Vol. 23, No. 1, pp. 63-79, 2008.
- [10] D. W. Ko, International comparisons on the expenditure behaviors of tourism festival visitors. *Journal of Tourism Sciences*, Vol. 27, No. 4, pp. 163-182, 2004.
- [11] D. J. Lee, An Investigation of causality between travel expenditure and macro economic variables. *Journal of Tourism Sciences*, Vol. 21, No. 2, pp. 26-38, 1998.
- [12] H. C. Lee, Determinants of visitor expenditure on a local festival: a Tobit analysis. *Journal of Tourism Sciences*, Vol. 26, No. 1, pp. 31-46, 2002.
- [13] M. S. Lee, A study on developing travel facility complex based on resort choice factors in the estern mountain area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1(5B), pp. 2693-2704, 2009.
- [14] P. T. Long & R. Perdue, The economic impacts of rural festival and special event: Assessing the spatial distribution of expenditure.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 28, No. 4, pp. 10-14, 1990.
- [15] C. Mok & T. Iverson, Expenditure based on segmentation: Taiwanese tourists to Guam. *Tourism Management*, Vol. 21, pp. 299-305, 2000.
- [16] K. H. Ryu, The correlation of business cycle and tourist expenditure in the case of Korea. *Journal of Tourism Sciences*, Vol. 22, No. 2, pp. 389-395, 1998.
- [17] W. J. Yang & U. J. Bae, A study on regional competitiveness of travel destination abroad.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8(3), pp. 1105-1117, 2006.

**정 욱 영(Jeong, Ug-yeong)**



- 1995년 2월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 석사)
- 2003년 8월 : UCLA 경제학과 (경제학 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관동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관광경제

· E-Mail : ujeong@kd.ac.kr

**한 진 영(Han, Jin-Young)**



- 2003년 8월 : 경희대학교 국제회의 산업학과(관광학 석사)
- 2007년 8월 :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호텔관광경영학 박사)
- 2009년 9월 ~ 현재 : 관동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컨벤션, 호텔관광

· E-Mail : jyhan@kd.ac.kr